

# 생활영역별 농촌결혼이민여성 통합정책의 선호 정향성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양순미<sup>a\*\*</sup> · 이진숙<sup>b</sup> · 김혜숙<sup>c</sup>

<sup>a</sup>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sup>b</sup>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sup>c</sup>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 Study on Preference Ori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an Integration Policy for the Rural married immigrant women according to life areas

Soon-Mi Yang<sup>a</sup> · Jin-Sook Lee<sup>b</sup> · Hai-Sook Kim<sup>c</sup>

<sup>a</sup>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sup>b</sup>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c</sup>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effectiveness and preference orientation of an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rural married immigrant women according to eight life areas. For this purpose was surveyed non-multicultural residents and multicultural couples. By analysis, first, the assimilation orientation as an model of integration policy for the women was preferred most highly at the life language area by every respondent. The multiculturalism orientation was preferred most highly at the private area such as dietary-life culture. Second, ANOVA analysis showed that the positive effectiveness on the language policy are evaluated most highly by the respondent having assimilation preference orientation. And the positive effectiveness on dietary-life culture policy are evaluated most highly by the respondent having multiculturalism orientation. Third, positive effectiveness level of the policy estimated by the resident was lower than it of multicultural couple significantly. In conclusion,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seen as on that point preference orientation of integration policy for the women, the domain specificity is present in the attitude of the multicultural couple and resident. Therefore it suspect that integration policy for the women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according to life sphere.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integration,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 1. 서 론

문화는 과거의 인간행동의 산물이면서 미래의 인간행동의 조형자이며, 인간은 문화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행동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Segall, Dasen, Berry, &

Poortinga, 1999). 그러므로 같은 문화집단에 속하는 성원들은 그들만의 특징적인 심리내용과 행동양식을 가지게 되며(조궁호, 2003), 반면 다른 문화집단에 속하는 성원들은 다른 심리내용과 행동양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통합하

주요어: 결혼이민여성, 통합,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091202015)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양순미) 전화: 063-238-2646 e-mail: ysm@korea.kr

고 일체감을 지향하는 구심점을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례로 오래 전부터 외국으로부터 이민자를 영입해와 한 사회안에 다양한 국가의 문화가 혼재되어있는 선진 다문화국가들은 차별배제모형·동화모형·다문화모형 등 다양한 이민유입정책들을 통해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해 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민유입국에서는 이들 정책 유형 중 한 가지를 이민자 유입 및 통합정책으로 삼거나 여기에 다른 것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류사회의 사회문화적응 정향성이 압도적으로 다문화주의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Breugelmans & van de Vijver, 2004).

이와 같이 선진이민사회가 노력해 온 다양성 통합의 과정은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공공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농촌의 미혼남성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다문화현상에 대한 담론이 우리사회에도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였고(양순미, 2011),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외외국인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민유입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일관된 정책 표명이 부재하고 외국인 정책의 정향성에 대한 정부의 원칙 전명이 없는 상황에 있다(양순미, 2013). 또한 압축된 사회적 다양성 및 다문화와 관련된 의제가 논의될 공론의 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정책이 수립되었다(원숙연 & 박진경, 2009)는 비판과 함께 일부에서 다문화현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헤럴드경제, 2013).

이민자유입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사회 일각에선 이민자들에게 완전한 동화를 요구하는 정서를 표출하는가하면, 다른 일각에선 마치 우리사회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는가 하면 상당 수의 농촌의 결혼이민여성들은 주류사회 거주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태도가 이중적, 차별 혹은 냉소적인 것(양순미, 2013)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다문화현상에 대한 수용태도나 견해도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정책 선호 정향성에 있어서 다양성은 생활영역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Berry의 모델을 적용하여 이민자

들의 적응태도에 영역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Arends-Toth와 Van de Vijver(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터키인들은 공적생활에서는 통합전략을 선호하지만 사적생활에서는 분리전략을 선호하였다(Breugelmans & van de Vijver, 2004, 재인용).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다문화사회에 직면해 문화다양성이 한층 심화되는 농촌 공동체내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을 통합하는 이민유입정책의 정향성을 생활영역별로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원론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결혼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다문화현상이 깊어가는 농촌 다문화 공동체의 통합과 일체감 형성을 위해 이의 구심점이 되는 결혼이민자의 통합을 위한 정책모형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제고하기 위해 Berry(1997), Hartmann & Gerteis(2005) 등의 모델을 적용하여 농촌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결혼이민자 정책<sup>1)</sup> 유형의 선호 정향성과 정책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생활영역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생활영역별로 다문화 통합 전략이나 모형을 탐색·개발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관점·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써,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는 생활영역별로 결혼이민자통합정책의 선호 정향성이나 정책효과성 등을 분석하면서 농촌다문화공동체의 통합을 견지할 정책유형 및 방향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 2. 선행연구 고찰 및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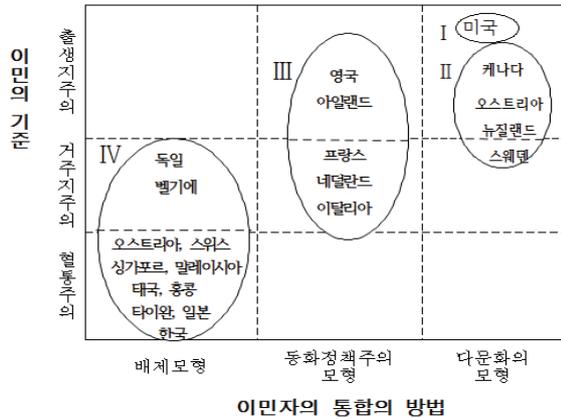
### 2.1. 외국의 이민유입국의 이민자 통합유형

이민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의 유형<sup>2)</sup>은 차별배제모형·동화모형·다문화모형의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1) 본 연구에서 농촌의 외국인 이민자 정책정향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결혼이민자 정책 차원으로만 국한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현상의 시원이 농촌미혼남성의 만혼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적 방안모색의 차원에서 출발한 것으로써(양순미, 2011), 농촌의 대다수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2) 이민유입정책을 일부에서 다문화정책으로 왜곡하여 명명하기도 하나, 이는 현상적인 측면을 표면적으로 과일반화 명칭으로써 정책지향성을 반영하거나 내포하지는 않는다.

(그림 1)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의 유형론



세 가지 범주중 첫째,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를 3D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 국적·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차별배제모형에서 차별배제의 기준은 소수자집단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적 평판이나, 정책대상 집단이 사회전체의 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하는 도구적 효용성, 마지막으로 특정 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권력에 대한 평가이다. 대표적인 예로 1960년대 독일에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사용한 손님노동자제도(guest worker system)는 차별배제모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 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동화모형은 유입국 사회가 자국 사회의 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에게 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치르는 조건으로 ‘국민’으로 합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셋째, 다문화모형(multicultural model)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 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 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symbiosis)에 둔다. 다문화 모형은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세분할 수 있다. 이 두 개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제조건과 실현 방법이 다르다.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원성·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지만,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

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미국에서는 자유방임주의적 접근에 근거한 문화다원주의를 사회통합의 원리로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국가개입주의적 접근에 근거한 다문화주의를 추구하고 있다(설동훈, 2006).

한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세 가지 이민자 정책 유형(차별배제모형·동화모형·다문화모형) 중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두 가지를 부분적으로 병행하기도 한다.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화모형과 다문화주의모형을 동시에 채택하기도 한다. 영역에 따라 정책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노동시장이나 사회정책 등의 영역에서는 동화정책이, 교육·문화정책 등의 영역에서는 다문화주의정책이 시행되기도 한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 다문화국가들이 노동력 확보를 위한 노동이민정책에 중점을 두는 반면, 대만과 일본은 결혼이민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문화정책의 기초 및 효과에 있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표 1>4).

## 2.2. 이민자통합 유형의 구조화를 위한 이론적 틀

이민자들의 적응양상을 차원과 구조화를 통해 유형화하고 범주화하려는 노력들이 Berry, Hartman, & Gerteis, 원숙연 등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Berry(1997)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가치 유지 특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 특성의 2차원으로 설명하고 이를 조합하여 4가지 유형의 문화적응유형을 구조화하였다. 그는 문화적응 과정을 정서, 행동, 인지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루면서 문화적응의 상태를 두 가지 차원(첫째,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 할 것인가. 둘째,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 할 것인가 아닌가)의 네 가지 유형(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으로 범주화하고 문화적응에 대한 다양한 측정기법을 개발하였다.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통합(integration),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ty)가 된다.

3) 자료: Castle and Miller을 이용하여 Seol (2005)이 작성

4) 김미나(2009), 설동훈(2006), 정창화·허영식(2012) 등을 인용하여 양순미(2013)가 재구성함.

Berry의 문화적응유형은 이민자통합유형에 따른 다문화정책을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이분법적 연속선상에서 개념화할 경우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assimilationism)를 다른 극단으로 하는 단선적 개념이 되고, 다문화정책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규정되면서 정책 내부에 존재하는 변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과소 포괄의 우(愚)를 범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Berry모델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am(1995)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문화적응을 할 때 맥락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는데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전략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통합을 가장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Hartman & Gerteis(2005)은 전체구성원을 연결하는 이념(cohesion)이 무엇이나, 그리고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들로 이루어진 조직(association)이 무엇이나 하는 이차원적 프레임으로 4가지 모형을 구조화하였다. 즉 전체구성원을 연결하는 이념(cohesion)이 실질적인 도덕결합(substantive moral bonds)이나 아니면 절차적인 규범(procedural norms)이냐에 따라, 그리고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들로 이루어진 조직(association)이 사회내의 개인이나 중재집단이나에 따라 다양성의 이차원적 프레임을 4가지 유형 즉 동화(assimilation),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 상호작용

적 다원주의(interactive pluralism), 분절적 다원주의(fragmented pluralism)로 구조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숙연(2008)은 Hartman & Gerteis(2005)의 이론을 토대로 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이나, 그리고 집단정체성의 속성이 무엇이나에 따라 4가지 유형을 구조화하였다. 즉 정책의 방향성이 포섭이나 배제이나에 따라, 집단정체성의 속성이 명확하나 불명확하나에 따라 동화(assimilation),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해체(dissolution)로 유형화하였다.

이의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Berry의 유형모델에 기초해 한국적인 방식만을 수용하는 경우 동화정향성, 한국과 이민여성의 모국의 방식을 모두 수용하는 경우 다문화정향성, 이민여성의 모국의 방식만을 수용하는 경우 분리정향성, 한국과 이민여성의 모국의 방식을 모두 거부하는 경우 주변화정향성으로 범주화하여 농촌다문화 정책의 선호 정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2.3. 선진국가 주류사회의 이민자통합 정책 유형별 선호 특성

문화적응은 다수와 소수집단 모두가 이문화적 접촉에 의

〈표 1〉 주요 이민자유입국가의 통합 정책 방향 및 효과 분석표

국가	정책대상	정책 정향성	정책효과
미국	노동이민	◦ 문화다원주의 (장기적으로 동화추구, 단기적으로 이민자들이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적 관습을 유지하는 것을 용인)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민자 집단을 급속히 통합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
캐나다	노동이민 (유럽권우대)	◦ 다문화주의 (서로 다른 민족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굳이 녹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존하도록 용인)	영국계와 프랑스계로 양분된 캐나다 사회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존속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평가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이민 (아시아계 확대)	◦ 다문화주의 정책 (책임, 존중, 공정, 혜택의 원칙)	우수인력의 유치위해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를 폐기하며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활용
스웨덴	노동이민	◦ 다문화주의 정책 (직접 정책, 간접 정책, 단계적 통합교육-언어)	계층간 계급갈등을 축소
영국	노동이민 (구식민국가 중심)	◦ 동화정책 (공화주의 모형) : 자유방임주의적 정책 기조 유지	영국 정부의 자유방임주의적 정책이 결과적으로 이슬람 사회의 고립을 방지했다는 비판 유발
독일	노동이민 (유럽연합출신증가)	◦ 동화정책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시민권 모형)	이민자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
대만	노동이민, 결혼이민	◦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국민개념 형성 - 생산가능직 외국인력 : 차별배제 모형 - 결혼이민자 : 동화모형	노동이민에 대해 정착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일본	노동이민, 결혼이민	◦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국민개념 형성 - 생산가능직 외국인력 : 차별배제 모형에 입각한 기능실습제 - 결혼이민자 : 동화모형 (국가의 기본단위를 이루는 가족의 문제로 접근)	다문화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 태도 등으로 사회갈등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해 상호영향 받는 쌍방향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Montreuil & Bourhis, 2001; Zagefka & Brown, 2002). 다문화 관념은 통합차원의 문화적응태도의 사회적 대응으로 인식될 수 있다(Berry, 2001). 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류사회의 사회문화적응 정향성이 압도적으로 다문화주의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다문화주의가 주류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항상 지지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제안한다(Breugelmans & van de Vijver, 2004). 단지 캐나다에서만 소수자의 통합을 꾸준히 주장하는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Arends-toth & van de vijver, 2003; Montreuil & Bourhis, 2001), 다른 국가들에서는 다소 불명확한 양상을 보인다.

Ho(1990)에 의하면 오스트리아는 많은 주류사회인들이 동화와 통합을 조화하는 정향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다문화정책에 대해 중도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Arends-toth & van de vijver, 2003, 재인용). Piontkowski, Florack, Hoelker, & Obdrzalek(2000)에 의하면 독일과 스위스는 대부분이 통합을 지지하고 이어 동화를 지지하지만 슬로바키아에서는 통합, 동화, 그리고 주변화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지하는 혼합된 양상을 보였다.

다른 한편 Zick, Wagner, Van Dick, & Petzel(2001)는 대부분의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일의 통합 정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네델란드의 주류사회구성원들은 동화를 가장 높게 선호하고 이어 근소한 차이로 통합을 선호하였는데, 네델란드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관용적으로 허용되긴하나 그렇게 밀도감 있게 높게 허용되지는 않으며 다문화주의에 대한 지지는 아주 소극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사회에서는 주류사회구성원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수자들이 주류사회문화와 공적생활의 관습에 순화하도록 내재화 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rends-Toth & Van de Vijver, 2003).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민자 유입정책은 단일 정책이나 단일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보다 생활영역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나 다차원으로 접근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결혼이민자 유입 정책의 정향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생활영역을 다차원적으로 세분화하여 일상생활언어, 자녀양육언어,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표본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농촌 남성과 결혼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출신국 등의 다문화 가족의 부부와 농촌지역민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정책 정향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조사대상을 다양화한 것은 첫째, 농촌의 다문화현상의 시원이 되는 결혼이민자 통합 정책이 결혼이민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합의에 의해 정향되어야 하며, 둘째, 결혼이민자가 소속된 다문화가족집단과 비다문화가족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조사대상은 계통추출에 의해 선정된 전국 25개 시·군의 25개 마을과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은 하나의 가구에서 부부를 쌍으로, 지역민은 남성과 여성을 비례할당적으로 표집하였다. 특히 조사대상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가는 별도 제한없이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가구를 의도 표집하여 현지 농촌생활모니터요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각각 방문하여 면접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전국 25개 시·군에서 지역민 298명, 다문화가족 부부 198쌍 396부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결혼이민여성이 중국출신인 다문화가족이 48호, 일본이 35호, 필리핀 45호, 베트남 57호, 기타 3호가 표집되었다.

#### 3.2. 척도

다문화통합정책 선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척도는 9개 생활영역에 대해 Berry(1997), Hartmann & Gerteis(2005), 원숙연(2008) 등의 연구에서 도출된 프레임 토대로 각각의 생활영역에 대해 한국문화와 결혼이민여성 모국의 문화에 대해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의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즉 한국문화만 수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동화형, 한국과 결혼이민여성 모국의 문화 모두를 수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다문화형, 결혼이민여성 모국의 문화만 수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분리형, 한국과 결혼이민여성 모국의 문화를 모두 거부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주변화형 4가지 유형의 프레임을 명목형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농촌의 결혼이민자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는 Pratto & Lemieux(2001)의 척도

를 이용하여 부정적 관점의 3개 문항과 긍정적 관점의 2개 문항은 원숙연(2013)이 번역한 것을 인용하였고, 긍정적 관점의 1개 문항은 Pratto & Lemieux(2001)의 원문을 직접 수정하여 본 연구에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긍정적 관점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부정적 관점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밖에 조사대상의 연령, 학력, 생활수준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여러 선행연구를(양순미, 2006, 2011, 2012, 2013, 2014; 양순미 외 2인, 2010; 양순미 외 2인, 2011 등) 통해 활용·검증해 온 양순미(2001, 2006)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을 묻는 문항은 양순미(2001)의 연구를 인용하여 개방형으로 구성하였다. 농촌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의 남편의 학력을 묻는 질문문항은 양순미(2001)의 연구를 인용하여 개방형으로 작성한 것을 분석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에서부터 대졸까지 서열화하여 이용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을 묻는 문항은 양순미(2006)의 연구를 인용하여 초등학교 졸업에서부터 대졸까지 서열형으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생활수준은 양순미(2001)의 연구를 인용하여 하하에서 부터 상상까지 6점 Likert로 구성하였다.

### 3.3. 자료의 분석

조사수집된 자료중 미응답된 항목이 많거나 부부가 쌍으로 조사되지 않은 자료는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농촌지역민 286명, 농촌 다문화가족의 부부 189쌍 372명의 자료를 SA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빈도분석, 평균분석), paired t-test, ANOVA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및 논의

### 4.1. 사회인구학적인 및 외국인정책대상 인식 특성

#### 4.1.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조사대상중 다문화가족 남편의 평균연령은 48.0세로써 40대가 55.9%, 50대가 34.6%순으로 높았다. 아내인 결혼이민여성의 평균연령은 36.3세로써 20대가 31.6%, 30대가 31.0%순으로

로 높았다. 지역민의 평균연령은 54.4세로써 50대가 52.6%, 60대 이상이 23.3%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표집된 조사대상에 있어서 농촌지역민의 평균연령은 다문화가족의 남편 보다 약 6세, 결혼이민여성 보다 약 18세 많았다. 연령대별 분포는 농촌지역민은 50대가 약 53.0%, 다문화가족의 남편은 40대가 약 55.4%, 다문화아내는 29세 이하가 약 31.4%로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의 학력분포에 있어서, 결혼이민여성은 다문화남편이나 지역민 보다 초등학교 졸업비율이 낮은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비율은 높았다. 평균학력은 다문화가족의 남편이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이고 결혼이민여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이며, 지역민은 2.8로써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이었다<표 2, 표 3>. 이러한 경향은 농촌의 일반 중년기 가족의 남편의 평균 학력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유사하나, 농촌의 일반 중년기 가족의 아내들의 학력은 결혼이민여성들의 평균 학력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여러 선행연구(양순미, 2012, 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신의 가족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결혼이민여성 모두 평균 2.9수준으로 유사하게 응답한 반면 지역민은 3.5수준으로 응답해 다문화가족보다는 지역민들이 그들 자신의 가족의 생활수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표 3>.

<표 2> 빈도분석에 의한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집단	변수	다문화가족		
		남편 n(%)	결혼이민여성 n(%)	농촌지역민 n(%)
연령	20-29세	-	59(31.6)	-
	30-39세	11( 5.8)	58(31.0)	5( 1.8)
	40-49세	105(55.9)	50(26.7)	63(22.3)
	50-59세	65(34.6)	20(10.7)	149(52.6)
	60세 이상	7( 3.7)	-	66(23.3)
	<b>계</b>	<b>188(100.0)</b>	<b>187(100.0)</b>	<b>283(100.0)</b>
학력	초등학교 졸	22(12.0)	13( 6.9)	27( 9.7)
	중학교 졸	39(21.2)	42(22.5)	75(27.0)
	고등학교 졸	101(54.9)	87(46.5)	131(47.1)
	전문대학 졸	4( 2.1)	29(15.5)	3( 1.1)
	대졸 이상	18( 9.8)	16( 8.6)	42(15.1)
	<b>계</b>	<b>184(100.0)</b>	<b>187(100.0)</b>	<b>278(100.0)</b>
생활수준	하	57(30.4)	59(31.6)	26( 9.2)
	중	128(68.1)	122(65.2)	231(81.6)
	상	3( 1.5)	6( 3.2)	26( 9.2)
	<b>계</b>	<b>188(100.0)</b>	<b>187(100.0)</b>	<b>283(100.0)</b>

(표 3) 평균분석에 의한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다문화가족				농촌지역민	
	남편		아내			
	m(S.D.)	범주	m(S.D.)	범주	m(S.D.)	범주
연령	48.0(5.81)	30-66	36.3(9.2)	20-58	54.4(7.4)	32-75
학력	2.8(1.0)	1-5	3.0(1.0)	1-5	2.8(1.1)	1-5
생활수준	2.9(1.0)	1-6	2.9(1.0)	1-6	3.5(0.9)	1-6

4.1.2. 외국인 유형별 지원 정책 대상 여부에 대한 인식 특성

농촌지역민 및 다문화가족의 부부를 대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누가 외국인 지원정책의 대상인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표 4>, 농촌지역민의 83.9%가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정책지원의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결혼이민여성은 81.1%, 외국인농업노동자는 62.3%, 다문화가족 남편은 51.8%, 외국인노동자는 50.2%가 정책 지원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의 자녀, 외국인농업노동자 고용농가는 각각 89.1%, 70.3%, 51.2%수준에서 정책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족의 남편은 99.5%가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정책 지원의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결혼이민여성 95.7%, 다문화가족남편 80.6%, 외국인농업노동자 68.3%, 외국인노동자 고용농가 54.0%, 외국인노동자는 62.5%가 정책 지원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각각 84.3%, 67.7%수준에서 정책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아내인 결혼이민여성은 98.9%가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정책지원의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결혼이민여성 96.3%, 다문화가족남편 82.5%, 외국인농업노동자 77.5%, 외국인노동자 고용농가 56.7%, 외국인노동자는 71.2%가 정책 지원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각각 75.5%, 63.8%수준에서 정책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농촌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의 부부 모두 다문화가족의 자녀,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의 남편, 외국인농업노동자, 외국인노동자를 정책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국가 정책지원대상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인지도는 세 집단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정책 대상에 대한 인식이 뿌리 깊은 혈통중심에 기초해 있다(유의정, 2014)는 것과 다문화 2세대들이 농촌사회의 후계인력으로서 중요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4.2. 생활영역별 농촌 결혼이민여성 통합정책 유형 선호 및 정책 효과성 특성 분석

4.2.1. 생활영역별 농촌결혼이민여성 통합정책 선호

생활영역별로 농촌결혼이민여성 통합정책 유형 선호 정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일상생활언어

(표 4)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지원 정책 대상의 범위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정책대상	결혼이민 여성	다문화 가족 자녀	다문화 가족 남편	외국인 농업노동자	외국인농업 노동자 고용농가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불법체류 자의 자녀
		n(%)							
지역민	정책지원 대상	231(81.1)	240(83.9)	147(51.8)	177(62.3)	139(48.8)	142(50.2)	31(10.9)	85(29.7)
	정책지원 대상 제외	54(18.9)	46(16.1)	137(48.2)	107(37.7)	146(51.2)	141(49.8)	254(89.1)	201(70.3)
	<b>계</b>	<b>285(100.0)</b>	<b>286(100.0)</b>	<b>284(100.0)</b>	<b>284(100.0)</b>	<b>285(100.0)</b>	<b>283(100.0)</b>	<b>285(100.0)</b>	<b>286(100.0)</b>
다문화	정책지원 대상	180(95.7)	188(99.5)	150(80.6)	127(68.3)	101(54.0)	115(62.5)	29(15.7)	60(32.3)
	정책지원 대상 제외	8( 4.3)	1( 0.5)	36(19.4)	59(31.7)	86(45.6)	69(37.5)	156(84.3)	126(67.7)
	<b>계</b>	<b>188(100.0)</b>	<b>189(100.0)</b>	<b>186(100.0)</b>	<b>186(100.0)</b>	<b>187(100.0)</b>	<b>184(100.0)</b>	<b>185(100.0)</b>	<b>186(100.0)</b>
결혼 이민 여성	정책지원 대상	180(96.3)	187(98.9)	156(82.5)	145(77.5)	106(56.7)	131(71.2)	46(24.5)	68(36.2)
	정책지원 대상 제외	7( 3.7)	2( 1.1)	33(17.5)	42(22.5)	81(43.3)	53(28.8)	142(75.5)	120(63.8)
	<b>계</b>	<b>187(100.0)</b>	<b>189(100.0)</b>	<b>189(100.0)</b>	<b>187(100.0)</b>	<b>187(100.0)</b>	<b>184(100.0)</b>	<b>188(100.0)</b>	<b>188(100.0)</b>

〈표 5〉 조사대상 집단에 따른 생활영역별 농촌 결혼이민여성 통합정책유형 선호도

생활영역 선호하는 정책유형		일상생활 언어	자녀양육	자녀양육시 사용언어	식생활문화	가족생활 예절	주생활 문화	의생활문화	종교생활
		n(%)	n(%)	n(%)	n(%)	n(%)	n(%)	n(%)	n(%)
지역민	동화형	213(75.5)	111(39.0)	101(35.3)	65(23.2)	129(45.1)	157(54.9)	120(42.0)	116(40.9)
	다문화형	64(22.7)	168(59.2)	180(62.9)	215(76.8)	149(52.1)	126(44.1)	159(55.6)	144(50.7)
	분리형	5( 1.8)	5( 1.8)	3( 1.1)	-	8( 2.8)	3( 1.0)	7( 2.4)	21( 7.4)
	주변화형	-	-	2( 0.7)	-	-	-	-	3( 1.0)
	계	282(100.0)	284(100.0)	286(100.0)	280(100.0)	286(100.0)	286(100.0)	286(100.0)	284(100.0)
남편	동화형	142(75.1)	69(36.9)	55(29.4)	35(18.6)	85(45.0)	98(52.1)	85(45.7)	68(36.8)
	다문화형	44(23.3)	110(58.8)	125(66.8)	150(79.8)	98(51.9)	85(45.2)	101(54.3)	95(51.4)
	분리형	3( 1.6)	8( 4.3)	7( 3.8)	3( 1.6)	6( 3.1)	5( 2.7)	-	16( 8.7)
	주변화형	-	-	-	-	-	-	-	6( 3.1)
	계	189(100.0)	187(100.0)	187(100.0)	188(100.0)	189(100.0)	188(100.0)	186(100.0)	185(100.0)
다문화 아내	동화형	128(67.7)	63(33.5)	48(25.4)	34(18.0)	80(43.0)	94(49.7)	74(39.2)	54(28.6)
	다문화형	59(31.2)	121(64.4)	134(70.9)	153(81.0)	101(54.3)	92(48.7)	108(57.1)	108(57.1)
	분리형	2( 1.1)	4( 2.1)	7( 3.7)	2( 1.0)	5( 2.7)	3( 1.6)	5( 2.7)	23(12.2)
	주변화형	-	-	-	-	-	-	2( 1.0)	4( 2.1)
	계	189(100.0)	188(100.0)	189(100.0)	189(100.0)	186(100.0)	189(100.0)	189(100.0)	189(100.0)

영역은 다른 유형보다 한국방식을 수용하는 동화형 선호 정향성이 약 67.7~75.5%로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역민이 가장 높은 반면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낮았다. 자녀 양육 시 사용언어 영역은 다른 유형 보다 한국과 결혼이민여성 모국의 방식 모두를 수용하는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이 약 62.9~70.9%로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높은 반면 지역민이 가장 낮았다. 가족생활예절 영역은 한국과 결혼이민여성 모국의 방식 모두를 수용하는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이 약 51.9~54.3%로 다른 유형보다 높았으며,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높은 반면 다문화남편이 가장 낮았다. 자녀양육 영역도 한국과 결혼이민여성 모국의 방식을 모두 수용하는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이 58.8~64.4%로써, 이러한 경향은 결혼이민여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반면 다문화남편이 가장 약했다.

식생활문화 영역은 다른 유형보다 한국과 결혼이민여성의 모국방식 모두를 수용하는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이 76.8~81.0%로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높은 반면 지역민이 가장 낮았다.

주거문화 영역은 한국방식을 수용하는 동화형 선호 정향성이 49.7~54.9%로 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역민이 가장 높은 반면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낮았다.

의생활문화 영역은 한국과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의 방식 모두를 수용하는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이 54.3~57.1%로,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높은 반면 다문화남편이 가장 낮았다. 종교생활 영역은 한국과 결혼이민여성의 모국방식 모두를 수용하는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이 50.7~57.1%이며, 이러한 경향은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높은 반면 지역민에서 가장 낮았다.

종합하면 일상생활언어와 주거문화 영역은 한국방식수용을 선호하는 동화형 정향성이 가장 강하였으며 특히 일상생활언어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자녀양육시 사용언어, 식생활문화, 의생활문화 영역 등은 한국과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의 방식을 모두 수용하는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이 강하였으며 특히 식생활문화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이러한 결과는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항상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사회에서 소수자들은 주류사회문화와 공적생활양식의 관습에 순화하도록 내재적으로 조건화 되어있다는 Arends-Toth & Van de Vijver (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정책도 일상생활언어와 같은 공적생활영역에서는 동화형 정향성을 압도적으로 선호하

는가 하면 식생활문화방식과 같은 사적생활영역에서는 다문화형 정향성을 선호하는 교차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4.2.2. 농촌 결혼이민여성 통합 정책의 효과 평가

결혼이민여성 지원정책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성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민은 긍정적 효과성을 백분위 72.0점 수준으로, 부정적 효과성을 백분위 71.3점 수준으로 평가하였다<표 6>. 한편 유사한 척도를 이용해 외국인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 원숙연(2012)의 연구에서는 2.44수준(백분위 48.8점)으로 비교적 낮게 외국인 정책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정책으로 평가범주를 제한한 반면 원숙연(2013)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정책대상으로 평가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접근한데서 비롯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표 6> 집단별 통합정책 효과성 평가특성<sup>5)</sup> 분석

집단	변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m(S.D.)	백분위	m(S.D.)	백분위
농촌지역민		10.8(2.2)	72.0	10.7(2.5)	71.3
다문화 가족	남편	11.8(2.1)	78.7	12.0(2.7)	80.0
	아내	11.6(2.3)	77.3	11.8(2.7)	78.7

<표 7>은 농촌의 결혼이민여성 정책효과성을 조사집단간에 쌍체비교한 결과로써,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결혼이민여성간 정책의 긍정적 효과성과 부정적 효과성의 평가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민과 다문화가족 남편간, 또는 결혼이민성과 지역민간 정책의 긍정적 효과성에 대한 평가수준의 차이는 모두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지역민 보다 다문화부부가 긍정적 효과성을 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의 남편간, 또는 결혼이민성과 지역민간의 정책의 부정적 효과성에 대한 평가수준의 차이는 모두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지역민 보다 다문화 부부가 부정적 효과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민보다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결혼이민여성은 결혼이민여성

정책의 긍정적 효과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반면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표 7> 집단간 통합정책 효과 수준에 대한 비교 분석<sup>6)</sup>

정책효과평가 수준	통계량	통계량		
		m	S.E.	paired-t 값
긍정적 효과	다문화남편과 아내간	0.21	0.15	1.38
	지역민과 다문화남편간	1.06	0.21	-5.03***
	다문화아내와 지역민간	0.85	0.24	3.58***
부정적 효과	다문화남편과 아내간	0.17	0.19	0.89
	지역민과 다문화남편간	1.47	0.26	-5.57***
	다문화아내와 지역민간	1.31	0.28	4.70***

\*\*\* p < .001

4.3. 생활영역별 농촌 결혼이민여성 통합정책 유형 선호정향성에 따른 정책 효과성 분석

생활영역별 농촌 결혼이민여성 통합정책 선호 정향성에 따라 정책 효과성 평가 수준을 아노바(ANOVA) 분석한 결과가 <표 8>, <표 9>, <표 10>에 제시되어있다.

<표 8>에 의하면 농촌지역민의 경우, 일상생활언어영역에 대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동화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어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 분리형 선호 정향성의 순서로 높게 평가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식생활문화 영역에서는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동화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 보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생활문화 영역에서는 분리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어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 동화형 선호 정향성의 순서로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외에 자녀양육방식, 자녀양육시 사용언어, 가족생활예절, 의생활문화, 종교생활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동화형 선호 정향성 응답자들 보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5) 정책효과 평가에 있어 긍정적 효과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부정적 효과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6)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3개 집단이고, 대상별 설문조사도구의 내용이 차이가 있어 연구데이터 특성상 t-test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 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7>의 내용에 대해 paired t-test 분석하였음

〈표 8〉 지역민의 정책선호 유형에 따른 결혼이민자 정책 효과성 평가 수준

생활영역별 특성		지역민 평가							
		일상생활언어	자녀양육 방식	자녀양육시 사용언어	식생활방식	가족생활예절	주생활방식	의생활 방식	종교생활
		m(S, D)	m(S, D)	m(S, D)	m(S, D)	m(S, D)	m(S, D)	m(S, D)	m(S, D)
긍정적 효과	동화형	10,9(2,2)a	10,5(2,4)a	10,5(2,5)a	10,1(2,7)	10,5(2,4)a	10,5(2,3)b	10,7(2,3)ba	10,6(2,4)a
	다문화형	10,8(2,1)a	10,9(2,1)a	11,0(2,0)a	11,0(2,0)	11,0(2,0)a	11,2(2,1)ba	10,9(2,2)a	10,9(2,0)a
	분리형	8,4(2,2)b	12,0(2,8)a	11,3(2,1)a	-	10,9(2,2)a	13,0(3,5)a	9,3(1,8)b	10,8(2,5)a
	주변화형	-	-	10,5(4,9)a	-	-	-	-	10,7(3,2)a
	<b>F 또는 t값</b>	<b>3,15*</b>	<b>1,75</b>	<b>1,14</b>	<b>- 2,68**</b>	<b>1,65</b>	<b>5,29**</b>	<b>2,05</b>	<b>0,42</b>
부정적 효과	동화형	10,6(2,5)a	10,2(2,7)a	10,2(2,8)a	9,7(2,6)b	10,4(2,5)a	10,6(2,5)a	10,5(2,6)a	10,6(2,5)a
	다문화형	10,9(2,4)a	11,0(2,4)a	10,9(2,3)a	11,0(2,4)a	11,0(2,4)a	10,8(2,5)a	10,8(2,4)a	10,8(2,4)a
	분리형	8,4(2,1)b	10,6(2,1)a	10,7(2,3)a	-	8,8(2,7)b	10,7(2,5)a	9,6(1,3)a	10,6(3,2)a
	주변화형	-	-	13,0(2,8)a	-	-	-	-	9,7(3,2)a
	<b>F 또는 t값</b>	<b>2,30</b>	<b>3,07*</b>	<b>2,25</b>	<b>3,62***</b>	<b>4,67**</b>	<b>0,22</b>	<b>1,33</b>	<b>0,30</b>

\* p < .05    \*\* p < .01    \*\*\* p < .001

〈표 9〉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책선호 유형에 따른 결혼이민자 정책 효과성 평가 수준

생활영역별 특성		남편의 평가							
		일상생활언어	자녀양육 방식	자녀양육시 사용언어	식생활방식	가족생활예절	주생활방식	의생활 방식	종교생활
		m(S, D)	m(S, D)	m(S, D)	m(S, D)	m(S, D)	m(S, D)	m(S, D)	m(S, D)
긍정적 효과	동화형	11,8(2,2)a	11,9(2,1)a	12,1(2,1)a	12,0(2,6)a	11,9(2,1)a	11,9(2,1)a	11,7(2,1)	11,8(2,4)a
	다문화형	11,9(1,8)a	11,8(2,1)a	11,7(2,1)ba	11,8(2,0)a	11,7(2,2)a	11,8(2,2)a	11,8(2,2)	11,8(2,0)a
	분리형	10,3(1,5)a	10,6(2,4)a	10,6(1,8)b	11,0(1,7)a	11,7(2,5)a	10,2(1,9)a	-	11,8(1,9)a
	주변화형	-	-	-	-	-	-	-	11,8(2,6)a
	<b>F 또는 t값</b>	<b>0,73</b>	<b>1,25</b>	<b>1,63</b>	<b>0,37</b>	<b>0,21</b>	<b>1,49</b>	<b>-0,21</b>	<b>0,01</b>
부정적 효과	동화형	12,1(2,6)a	11,7(2,8)a	11,6(2,9)a	10,8(3,5)a	12,0(2,6)a	12,0(2,7)a	11,8(2,8)	11,7(2,7)a
	다문화형	12,0(2,8)a	12,4(2,4)a	12,3(2,4)a	12,3(2,3)a	12,2(2,6)a	12,2(2,5)a	12,2(2,5)	12,2(2,5)a
	분리형	7,3(1,2)b	8,0(2,2)b	8,9(3,0)b	7,0(1,7)b	9,0(3,7)b	8,6(2,6)b	-	12,0(2,8)a
	주변화형	-	-	-	-	-	-	-	10,5(4,2)a
	<b>F 또는 t값</b>	<b>4,80**</b>	<b>12,37***</b>	<b>6,73***</b>	<b>10,86***</b>	<b>4,12*</b>	<b>4,45**</b>	<b>-1,10</b>	<b>1,14</b>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자녀양육, 식생활 문화, 가족생활예절 영역에서 p=.05~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이 동화형 선호 정향성보다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낮게 평가하였다. 이외에 일상생활언어, 자녀양육시 사용언어, 주생활, 의생활, 종교생활 문화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동화형 선호 정향성 응답자들보다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낮게 평가하였다.

〈표 9〉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남편이 평가한 정책의 긍정

적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언어, 의생활, 종교생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동화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어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 등의 순서로 높게 평가하였다. 정책의 부정적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일상생활언어 영역의 경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동화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이어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 분리형 선호 정향성의 순서로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자녀양육, 자녀양육시 사용언어, 식생활문화, 가

(표 10) 결혼이민여성의 정책선호 유형에 따른 결혼이민자 정책 효과성 평가 수준

생활영역별 특성		일상생활언어	자녀양육 방식	자녀양육시 사용언어	식생활방식	가족생활예절	주생활방식	의생활 방식	종교생활
이민여성의 평가		m(S, D)	m(S, D)	m(S, D)	m(S, D)	m(S, D)	m(S, D)	m(S, D)	m(S, D)
긍정적 효과	동화형	11.9(2.2)a	11.5(2.3)a	11.6(2.3)a	11.2(2.4)a	11.4(2.5)a	11.5(2.4)a	11.5(2.3)a	11.6(2.6)a
	다문화형	10.8(2.5)a	11.6(2.4)a	11.6(2.4)a	11.7(2.3)a	11.8(2.2)a	11.8(2.3)a	11.7(2.4)a	11.4(2.3)a
	분리형	12.5(0.7)a	11.8(1.9)a	11.1(2.1)a	9.5(0.7)a	10.8(2.2)a	9.0(1.0)b	11.0(1.9)a	12.3(1.9)a
	주변화형	-	-	-	-	-	-	11.0(2.8)a	11.0(2.3)a
	<b>F 또는 t값</b>	<b>4.93**</b>	<b>0.02</b>	<b>0.14</b>	<b>1.34</b>	<b>0.91</b>	<b>2.28</b>	<b>0.20</b>	<b>0.88</b>
부정적 효과	동화형	12.1(2.5)a	11.5(2.9)ba	11.5(2.7)ba	11.1(3.0)ba	11.8(2.5)a	11.7(2.6)a	11.9(2.6)a	11.8(2.6)a
	다문화형	11.5(2.9)a	12.1(2.5)a	12.0(2.6)a	12.0(2.6)a	12.2(2.7)a	12.0(2.8)a	12.0(2.6)a	11.9(2.5)a
	분리형	6.5(2.1)b	9.5(3.9)b	10.1(3.2)b	8.5(0.7)b	8.0(3.1)b	9.3(1.5)a	8.8(3.3)ba	12.0(3.1)a
	주변화형	-	-	-	-	-	-	8.5(0.7)b	8.3(3.3)b
	<b>F 또는 t값</b>	<b>4.98**</b>	<b>2.95*</b>	<b>2.03</b>	<b>3.25*</b>	<b>6.28**</b>	<b>1.54</b>	<b>3.45*</b>	<b>2.51</b>

\* p < .05    \*\* p < .01    \*\*\* p < .001

족생활예절, 주생활문화 영역에서는 모두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이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이어 동화형 선호 정향성, 분리형 선호 정향성의 순서로 낮게 평가하였다.

<표 10>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아내인 결혼이민여성이 평가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성은 일상생활언어영역에서만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리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어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 동화형 선호 정향성의 순서로 높게 평가하였다. 기타 나머지 영역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일관된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의 부정적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일상생활언어 영역의 경우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동화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정책의 부정적 효과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이어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 분리형 선호 정향성의 순서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시 언어, 식생활문화, 가족생활예절, 의생활문화 영역에서는 p=.05 또는 p=.01 수준에서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정책의 부정적 효과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이어 동화형 선호 정향성, 분리형 선호 정향성의 순서로 낮게 평가하였고 특히 의생활문화 영역에서는 주변화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정책의 부정적 효과성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표 8>,<표 9>,<표 10>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의 남편 및 결혼이민여성 모두에서 일상생활언어

영역에 대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동화형 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가장 높게, 부정적 효과는 동화형 선호 정향성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자녀양육방식과 식생활문화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는 다문화선호 정향성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두 p=.05 에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외에도 조사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다문화선호 정향성의 응답자들이 정책의 긍정적 효과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 부정적 효과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였다.

결론적으로 일상생활언어 영역에서는 동화형 선호 정향성을 지닌 응답자들이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가장 높게, 부정적 효과는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어 한국어 이수를 위한 현행 정책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4. 귀화조건 선호 정향 및 이에 따른 정책효과성 평가 특성

<표 11>은 조사대상별로 결혼이민여성의 귀화조건 선호 정향 및 이에 따른 정책효과성 평가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지역민의 41.5%가 귀화조건으로 국내체류기간 조건을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이어 한국어능력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4.7%로써 동화를 선호하는 정향성이 강하였다. 다문화남편의 경우 34.1%가 국내체류기간 조건의 연장을, 16.9%가 한국어능력조건을 강화할,

〈표 11〉 선호하는 귀화조건 및 이에 따른 정책효과성 평가 특성

조사대상별 귀화조건 선호 수준		지역민	다문화남편	결혼이민여성
선호하는 귀화조건		n(%)	n(%)	n(%)
	국내체류기간 조건의 연장	118(41.5)	63(34.1)	56(30.0)
	한국어 능력 조건 강화	70(24.7)	31(16.9)	40(21.4)
	혼인신고후 바로 국적취득	48(16.9)	54(29.4)	62(33.1)
	자녀출산여부 조건 추가	48(16.9)	36(19.6)	29(15.5)
	<b>계</b>	<b>284(100.0)</b>	<b>184(100.0)</b>	<b>187(100.0)</b>
조사대상별 정책효과평가 수준		지역민	다문화남편	결혼이민여성
선호하는 귀화조건		m(S, D)	m(S, D)	m(S, D)
긍정적 효과	국내체류기간 조건의 연장	10.6(2.2)a	11.5(2.2)a	11.5(2.4)a
	한국어 능력 조건 강화	10.9(2.5)a	11.5(1.9)a	11.6(2.2)a
	혼인신고후 바로 국적취득	10.9(2.1)a	12.1(2.1)a	11.8(2.4)a
	자녀출산여부 조건 추가	10.8(2.1)a	12.0(2.2)a	11.5(2.5)a
	<b>F 또는 t값</b>	<b>0.31</b>	<b>0.87</b>	<b>0.14</b>
부정적 효과	국내체류기간 조건의 연장	10.7(2.5)a	12.0(2.5)a	11.7(2.8)ba
	한국어 능력 조건 강화	10.6(2.5)a	11.3(3.1)a	10.9(3.0)b
	혼인신고후 바로 국적취득	10.6(2.7)a	12.0(2.7)a	12.3(2.1)a
	자녀출산여부 조건 추가	10.5(2.4)a	12.4(2.6)a	12.4(2.8)a
	<b>F 또는 t값</b>	<b>0.13</b>	<b>0.94</b>	<b>2.73*</b>

\* p < .05

29.4%는 혼인신고후 바로 국적취득 조건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해 전반적으로 다소 동화를 선호하는 정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33.1%가 혼인신고 후 바로 귀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이어서 30.0%는 혼인신고 후 바로 귀화허용을, 21.4%는 한국어 능력 조건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동화를 선호하는 정향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귀화조건 선호 정향성에 따라 정책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서만 부정적 효과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혼인신고 후 바로 귀화를 허용해야 한다거나 자녀출산여부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부정적인 효과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농촌의 결혼이민여성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귀화조건에 전반적으로 순응하면서 외연적으로 동화 정향성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민

자들이 문화적응을 할 때 통합을 가장 선호한다는 Sam(1995)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5. 요약 및 결론

농촌사회에 다문화현상이 깊어지면서 농촌 다문화 공동체의 통합과 일체감 형성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나 생활영역별로 다문화 통합 전략이나 모형을 탐색·개발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관점·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통합을 위한 정책모형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Berry(1997), Hartmann & Gerteis(2005) 등의 모델을 적용하여 농촌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결혼이민여성 정책의 정향성과 정책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생활영역별로 분석하면서 농촌다문화공동체의 통합을 견지할 정책유형 및 방향을 모색하려 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언하면, 첫째, 일상생활언어와 주거문화생활 방식은 한국방식수용을 선호하는 동화형 정향성이 강하였으며 특히 일상생활언어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양육시 사용언어, 식생활문화, 의생활문화 등은 한국과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의 방식을 모두 수용하는 다문화형 선호 정향성이 강하였으며 특히 식생활문화 방식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다문화주의가 모든 생활영역에서 지지되는 것은 아니며 영역특수성이 존재한다는 Arends-Toth & Van de Vijver(2003)와 Breugelmans & van de Vijver(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으로써 우리의 다문화사회를 통합하는 정책 정향성도 일상생활언어와 같은 영역은 동화형 정향성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식생활문화방식과 같은 영역은 다문화형 정향성을 보다 포용하는 등 생활영역별로 정책방향을 특성화하여 실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정책유형 선호 정향성에 따라 결혼이민여성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의 남편 및 결혼이민여성 등 조사대상 집단 모두에서 일상생활언어영역에 대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동화형 선호 정향성을 지닌 응답자에서 가장 높게, 부정적 효과도 동화형 선호 정향성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자녀양육과 식생활 문화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는 다문화선호 정향성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두  $p=0.05 \sim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현재 농촌의 결혼이민여성 정책이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된 정책유형 선호 정향성과 다소 유사한 양상으로 실행됨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따라서 일상생활언어 영역은 한국어 이수와 관련된 사회통합훈련프로그램 교육 등 현행 정책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귀화를 위해 치르게 되는 면접시험을 면제받게 되는 사회통합훈련프로그램 이수여부는 프로그램 단계별로 한국어 교육을 교육기관별로 임의로 설정하여 교육하는데 면접시험 면제를 위해서는 단계별 한국어 교육 이수 시간 요건을 강화 및 명문화 하거나, 사회통합훈련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한국어능력 자격증 등으로 귀화면접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귀화조건 및 이에 따른 정책효과성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민, 다문화가족의 남편 및 결혼이민여성 모두 국내체류기간의 연장 또는 한국어능력조건 강화 등 동화를 선호하는 정향성이 보다 강하였으며, 동화를 선호

하는 정향성을 보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책효과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귀화는 대한민국 국민됨이나 시민의식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농촌지역민과 다문화가족 남편과 결혼이민여성 등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국가정책지원대상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자녀,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의 남편, 외국인 농업노동자, 외국인노동자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인지도는 세 집단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의 결혼이민자 정책은 결혼이민여성에서 점차 2세대 자녀에게로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책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농업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여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생활영역별로 분석한 정책유형 선호정향성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집단간 다소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정책효과성의 평가 수준은 지역민 집단과 다문화부부 집단간에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즉 지역민들은 다문화남편과 결혼이민여성보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성은 낮게,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성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였다. 문화적응은 다수와 소수집단 모두가 이문화적 접촉에 의해 상호영향 받는 쌍방향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여러 선행연구(Montreuil & Bourhis, 2001; Zagefka & Brown, 2002 등)결과를 조명해 볼 때 농촌다문화 사회의 통합 및 일체감 향상을 위해 결혼이민자 정책실행과정에 농촌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소통채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교육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동기가 한국 사회적응이라는 목표지향성을 지니지만(양순미, 이은정, & 양정남, 2011), 농촌지역민들도 결혼이민여성들의 주류사회적응과 지역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양순미 등, 2010) 이러한 소통채널 구축은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김미나. (2009). 다문화사회의 진행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행정논총*, 47(4), 193-223.
2. 설동훈. (2006). *외국의 이민자 정책 비교 및 국내적용 가능성 탐색*. 농촌국제결혼정책 방안 세미나 자료집.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3. 양순미. (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5. 양순미. (2011). *한국 농촌사회의 다문화 출현 배경과 실태*. 2011 재외한인사회와 다문화국제학술회의 자료집(재외한인학회 등).
  6. 양순미. (201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집단주의 성향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국 중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329-345.
  7. 양순미. (2013).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과 지원 요구. *농촌지도와 개발*, 20(4), 963-1022.
  8. 양순미. (2014). *농촌 다문화의 문화적 통합전략에 대한 탐색 연구*. 2013년 농촌진흥청 농업공동연구사업 보고서.
  9. 양순미, 김승희, 이미화, & 김미숙 (2010). 사례연구를 통해 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농촌지도와 개발*, 17(2), 153-184.
  10. 양순미, 이은정, & 양정남 (2011).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교육참여동기유형별 특성 및 교육만족도·교육 후 생활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8(2), 215-238.
  11.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한국행정학보*, 42(3), 29-49.
  12. 원숙연. (2013). 외국인 정책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역학;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7(2), 85-112.
  13. 원숙연, & 박진경. (2009).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3), 201-224.
  14. 유의정. (2014). 건강한 다문화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 방향. *시대정신*, 봄호.
  15. 정창화, & 허영식. (2012).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주의와 공화주의적 주도문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30(1), 73-101.
  16. 조공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
  17. 헤럴드경제. (2013). *다문화 vs. 안티다문화... 누가 애국자인가*(2013. 8. 27).
  18. Arends-Toth, J., & Van de Vijver, F.J.R. (2000). Multiculturalisme: Spanning tussen ideaal en realiteit [Multiculturalism: More an ideal than a reality]. *Nederlands Tijdschrift voor de Psychologie*, 55, 159-168.
  19. Arends-Toth, J., & Van de Vijver, F.J.R. (2003). Multiculturalism and acculturation: Views of Dutch and Turkish - Dutch.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249-266.
  20.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21.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 615-631.
  22. Breugelmans, S.M. & van de Vijver, Fons J.R.(2004). Antecedents and Components of Majority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in the Netherland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3(3), 400-422.
  23. Hartman, D. & Gerteis, J. (2005). Dealing with Diversity: Mapping Multiculturalism in Sociological Terms. *Sociological Theory*, 23(2), 218-240.
  24. Montreuil, A., & Bourhis, R. Y. (2001). Majority acculturation orientations toward 'valued' and 'devalued' immigra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698-719.
  25. Piontkowski, U., Florack, A., Hoelker, P., & Obdrzalek, P. (2000). Predicting acculturation attitudes of dominant and non-dominant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1-26.
  26. Pratto, F. & Lemieux, A. F. (2001). The psychological ambiguity of immi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promoting immigration policy.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13-430.
  27. Sam, D. (1995). Acculturation attitudes among young immigrants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toward cultural chang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238-258.
  28. Segall, M. H., Dasen, P. R., Berry, J. W., & Poortinga, Y. H. (1999). *Human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An introduction to cross-cultural psychology*(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29. Seol, Dong-Hoon. (2005). Global Dimensions in mapping the foreign labor policies of Korea: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nalysis. *Development and Society* 34(1), 75-124.
  30. Zageka, H. & Brown,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ategies, relative fit and intergroup relations: immigrant-majority relations in German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 171-188.
  31. Zick, A., Wagner, U., Van Dick, R., & Petzel, T. (2001). Acculturation and prejudice in Germany: Majority and minority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 541-557.

Received 15 August 2015; Revised 06 September 2015; Accepted 12 September 2015



Dr. Yang, Soon-Mi is a research worker and specialist at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NAAS)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where she has studied rural families, the aged, and rural welfare since 1995. She got a Ph. D. at the Kyung-Hee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since 2005, are concentrated o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ddress: (55365)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Republic of Korea.  
E-mail) ysm@korea.kr  
phone) 82-63-238-2646



Dr. Lee, Jin Sook is a professor at Chonbuk university, where she has taught pedology. She studied at the Seoul and Kyung Hee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are concentrated on child studies, child policy, and human development.

Address: (5489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E-mail) jslee0820@jbnu.ac.kr  
phone) 82-63-270-3836



Kim Hai-Sook is a professor at Aju university, where she has taught psychology. She got the Ph.D. at the university of Iowa. Her research interests are concentrated on multicultural issues, and group psychology.

Address: (16499) 206 Worldcup-ro, Yeongtong-gu, Suwon, Republic of Korea.  
E-mail) hsk@ajou.ac.kr  
phone) 82-31-219-2770